

문화수도 광주, 문화시설 전국 최저



인구대비 문화시설, 전남 전국 최고

광주시의 공공도서관과 등록박물관의 숫자는 6대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지만 2곳 모두 1개관당 평균 직원과 학예직원의 숫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는 6대 광역시 중 미술관이 가장 많지만 관람객 숫자는 가장 적은 도시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 대비 문화기반 시설이 많은 도시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등록미술관이 가장 많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종사자 수는 가장 적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은 모두 2375개관으로 조사됐다.

◇광주, 공공도서관·등록박물관 수 전국 최저=광주의 문화기반시설은 모두 50개관으로 세종(8개관)과 울산(35)에 이어 문화기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특히 공공도서관과 등록박물관은 각각 17개관과 10개관으로 세종(공공도서관 1개관, 등록박물관 5개관)과 울산(13, 9)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적은 도시로 나타났다.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에는 각각 23개관과 14개관의 공공도서관과 등록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39)과 부산(31)이 공공도서관이 많은 도시로 확인됐다.

광주의 공공도서관 1개관 당 직원수는 14.12명으로 세종(16명)과 부산(15.03)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은 8.82명이었다. 사서직원수도 5.59명으로 전국 평균 4.25명보다 높았다.

광주 등록박물관 1개관 당 직원수는 13.7명으로 전국(평균 9.52명)에서 제주(16.48) 다음으로 많았으며, 학예직원수도 4.1명으로 전국(평균 1.94명)은 물론 서울(4.06) 보다도 많았다.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광주
미술관 가장 많지만
관람객은 가장 적어
전남
박물관 평균 관람객
제주 다음으로 많아

광주의 등록미술관은 모두 7개관으로 6대 광역시 중 최대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대전(5), 인천(4), 대구(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에는 모두 35개관의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울산과 세종은 미술관이 없는 도시로 조사됐다.

광주 등록미술관의 직원수는 105명(학예직원 20명)으로 부산 81명(15), 대전 42명(9), 대구 33명(9), 인천 28명(6) 등 타 광역시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 등록미술관의 연관람객은 30만9777명으로 대구(74만1158명), 부산(61만3831), 인천(43만2724) 보다 적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 광주시립미술관의 연관람객은 28만1027명이었으며, 다른 6개 미술관의 총관람객은 3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미술관은 지난해 72만7823명의 관람객을 기록했으며, 부산시립미술관에도 58만1860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7개관이 운영되고 있는 광주지역 문예회관의 1개관당 평균 공연일수는 170일

로 부산(301일), 대구(206), 대전(217), 울산(174) 보다 적었다. 하지만 유료 관람객 비율은 46.26%로 울산(54.36%), 대전(51.94) 다음으로 높았다.

광주 지방문화원의 1개관 당 평균 직원(2.4명), 연간 예산(25만6981), 연간 참여자수(2783)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남, 등록미술관 수 전국 최고~관람객은 최저=전남의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60개관, 등록박물관 47개관, 등록미술관 19개관, 문예회관 18개관, 지방문화원 22개관, 문화의집 7개관 등 모두 173개관으로 경북(184개관), 경남(176), 강원(182)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 수는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 수는 90.71개관으로 제주(208.82개관), 강원(11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국평균(46.44)의 2배에 달했다.

공공도서관은 31.46개관으로 제주(35.37개관·전국평균 16.91) 다음으로, 등록박물관은 24.64개관으로 강원(49.28·전국평균 14.74), 세종(40.93)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의 등록박물관 1개관당 평균 관람인원은 19만564명으로 제주(31만4616명)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미술관은 9.96개관으로 제주(30.31개관·전국평균 3.72개관)에 이어, 문예회관은 9.44개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남의 등록미술관 1개관당 평균 관람객은 2만2218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문예회관 1개관당 평균 공연일수는 98일로 강원(85일) 다음으로 적었으며, 문예회관 1개관당 평균 유료관객 비율도 10.81%로 세종(7.68%)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전국 평균은 28.22%였다.

/김성천기자 kki@kwangju.co.kr



“시는 내 삶의 존재 이유 시 속에서 시처럼 살고파”

임원식 시인 열 번째 시집 ‘나무도 사랑을 안다’ 펴내

“제 삶은 시를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는 인간의 모든 정서를 함축하며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니까요.”

해남 출신 우전 임원식 시인이 열 번째 시집을 펴냈다. 2007년 첫 시집 ‘당신의 텃밭’ 발간 이후 7년 만에, 문학인생에 의미 있는 매듭을 지은 것이다.

이번 시집 ‘나무도 사랑을 안다’(시문학사)에는 시와 더불어 보낸 10여 년의 세월이 오롯이 담겨 있다. 삶에서 견져 올린 정갈한 시어와 평이한 어법은 편안하면서도 독특한 울림을 준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초창기 시들은 시가 아닙니다. 좋은 시를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저만의 색깔이 담긴 시를 쓸 생각입니다.”

임 시인의 시작(詩作)은 일상적 삶의 체험과 기억, 사유를 기반으로 한다. 시는 어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는다. 그렇다고 그의 시가 마냥 쉽



고 가볍지만은 않다. 대상을 향한 애정과 감성 없이는 펼쳐낼 수 없는 무위자연의 세계다.

문득수 시인은 서문에서 “자연은 이 시인에게 세 가지의 근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첫째는 시의 발상의 근원이고, 둘째는 윤리적 근원이고, 셋째는 조원의 세계”라고 평한다.

임 시인의 시에 산과 나무, 꽃이 모두 의인화 되어 있는 이유다. 이는 시골 정서로 대변되는 체험에 창작의 ‘젓줄’을 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무도 생각을 하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줄까/ 달디 단 과일과 시원한 그늘/ 맑은 산소와 푸른 숲을 주고/ 땀감도 되고, 살림과 집도 되어주지...”(‘나무도 사랑을 준다’ 중에서)

그가 바라보는 나무는 뿌리부터 열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베푸는 대상이다. 한량없는 공덕은 진정한 사랑으로 연계된다. 장영우 문학평론가는 이를 “크고 화려한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마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임 시인은 항상 시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시와 함께 자족하며 시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단다. 그에게 시는 자연이자 존재 그 자체다.

“우리는 모두 자연이 주는 우주 속에서 삽니다. 인공 물질세계 보여도 거기에 표현할 수 없는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지요. 다만 인간이 그것을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봤을 뿐입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하모닉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4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하모닉스 여성합창단 열번째 정기연주회가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문예회관이 운영하는 여성합창교실 단원들로 구성된 광주하모닉스 여성합창단은 지난 1999년 창단후 정기연주회 뿐 아니라 실지자 가정 돌기 연주회를 통해 음악으로 사랑을 전해왔다.

‘12월의 하모니 The Simple’를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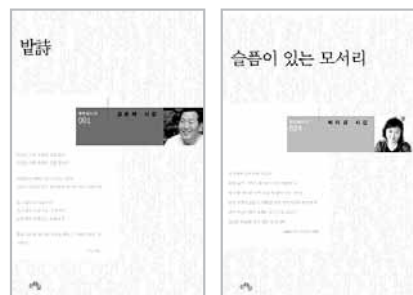
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가곡 ‘아카시아 꽃’, ‘두견이’, ‘동보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나 가거든’, ‘아베 마리아’, ‘웃음 소리’, ‘모두 함께 부르지’,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등 다채로운 곡들로 무대를 꾸미게 된다.

이준 광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았으며 소프라노 장미화, 남성 중창단 ‘S.C.Singers’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무료 공연. 문의 062-415-52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준태·박미경 시인

세종 문학 우수도서



지역에서 활발한 시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2명의 시집이 각각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나눔 및 교양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최근 심사자를 갖고 교양부문 410종, 문학나눔 부문 599종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김준태 시인의 ‘법정’(문학들)을 우수문학도서로, 박미경 시인의 ‘슬픔이 있는 모서리’(문학들 간)를 우수교양도서로 결정했다.

‘법정’는 시대에 대한 분노 속에서도 대지와 생명에 대한 사랑을 탐색해온 김준태 시인의 역작으로, 흙으로 상징되는 세계를 통해 이해와 희망을 묻는다. 박미경 시인의 ‘슬픔이 있는 모서리’는 존재론적 기원과 삶의 슬픔을 회상하며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담담하게 풀어놓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몇 점?”

www.cjhellovision.com